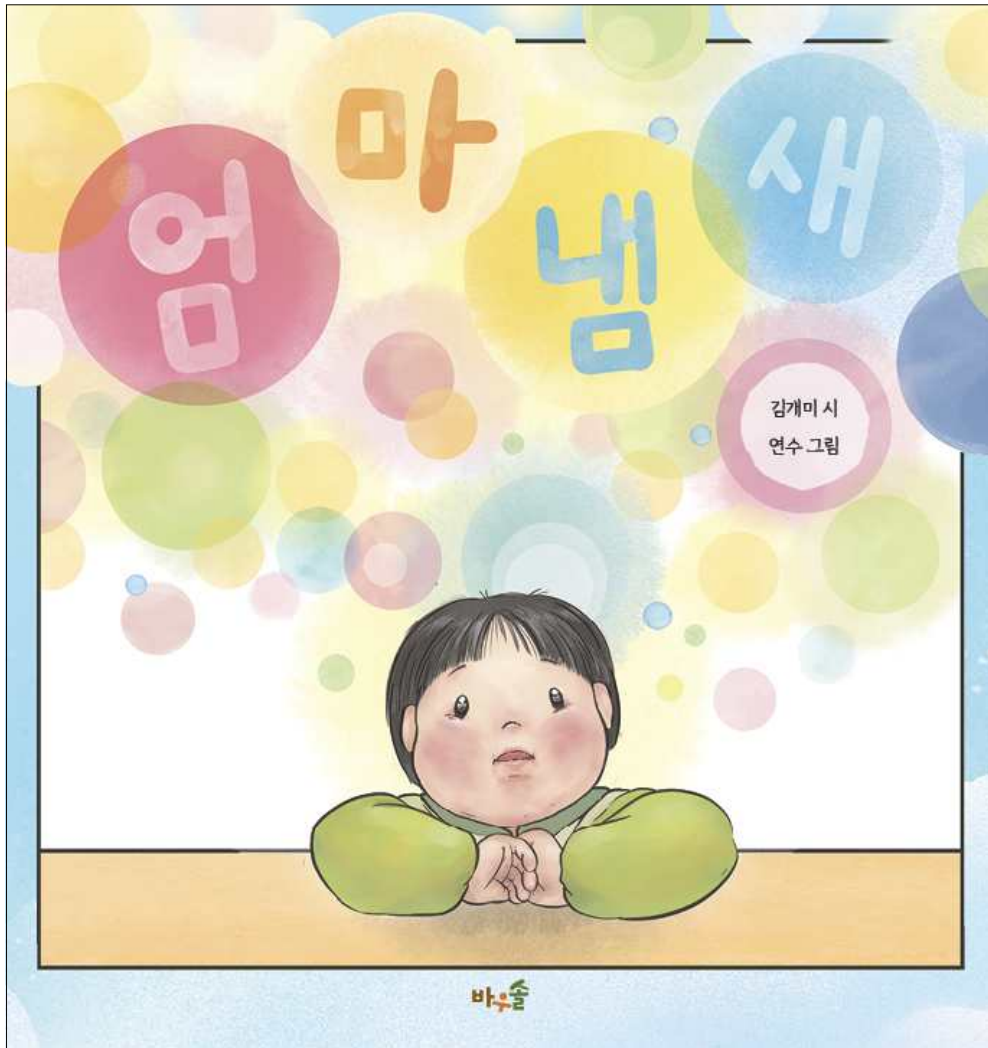


《엄마 냄새》 독서지도안



아이는 온 마음을 다해 엄마를 기다려요!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속마음을, 말보다 더 진한 향기로 전하는 그림책!

- 작가_ 김개미 시 · 연수 그림
- 출판사_ 풀과바람(바우솔)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1. 도서 소개

싱그러운 풀 내음, 구수한 누룽지, 향긋한 섬유 유연제, 달콤한 딸기... 여러분의 엄마에게선 어떤 향기가 나나요? 어떤 냄새만 맡아도 엄마가 떠오르나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저마다의 방법으로 기억하는 엄마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는 어떤 꽃향기보다도 포근하고 향기롭죠. 아이에게 엄마는 온 세상이니깐요.

《엄마 냄새》는 온 마음을 다해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속마음을 섬세하게 그려낸 시 그림책입니다. 김개미 시인은 한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며 '잠든 척'하는 순간들을 특유의 간결하면서도 감성적인 언어로 담아냈습니다. 표현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 담긴 엄마에 대한 사랑은 깊고 진합니다. 그 위에 더해진 부드러운 색감과 따뜻한 그림은 시가 가진 감정선을 시각적으로 확장해, 그림책만의 여운과 재미를 만들어냅니다.

오후가 되자 어린이집 친구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떠납니다. 집에 갈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엄마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아이는 창밖을 살피며 온 마음을 다해 엄마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점점 서운해지죠. 서운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엄마가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도대체 엄마는 왜 늦은 걸까요?

이 책은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사랑스러움과 애뜻함을 동시에 보여 주며,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아이의 시선으로 전하는 솔직하고 섬세한 감정들은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어른들의 마음마저 포근하게 어루만집니다.

책을 보며 아이가 느끼는 사랑의 방식,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의 온도, 그리고 엄마라는 존재의 깊이를 다시금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2. 지도 개요

- 대상 : 초등 1~2학년
- 관련 교과 영역 : 1학년 바슬즐 <사람들>, <하루>, <약속>, <상상> 공통
2학년 바슬즐 <나>, <물건>, <기억> 공통
1학년 1학기 국어 5. 반갑게 인사해요
1학년 2학기 국어 1. 기분을 말해요
4. 감동을 나누어요
5. 생각을 키워요
2학년 1학기 국어 4. 분위기를 살려 읽어요
5. 마음을 짐작해요
2학년 2학기 국어 1. 장면을 상상하며
4. 마음을 전해요

• 지도 요점 :

어린이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엄마를 보았지만, 아이는 서운한 마음에 '기다리지 않은 척'하며 자신을 숨깁니다. 말없이 잠든 척, 대답하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사랑을 티 내지 않으려 애쓰지요. 그런데도 엄마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도 일이 바빠 늦는 엄마나 아빠를 오래 기다린 적 있나요? 책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3. 책 이해하기

(1) 이 책의 주인공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누구를 기다리나요?



- ① 아빠
- ② 엄마
- ③ 할머니
- ④ 할아버지

▶ -----

(2) 엄마를 너무 오래 기다려 서운한 마음에 아이는 무슨 척을 하나요?



- ① 먹는 척
- ② 우는 척
- ③ 노는 척
- ④ 자는 척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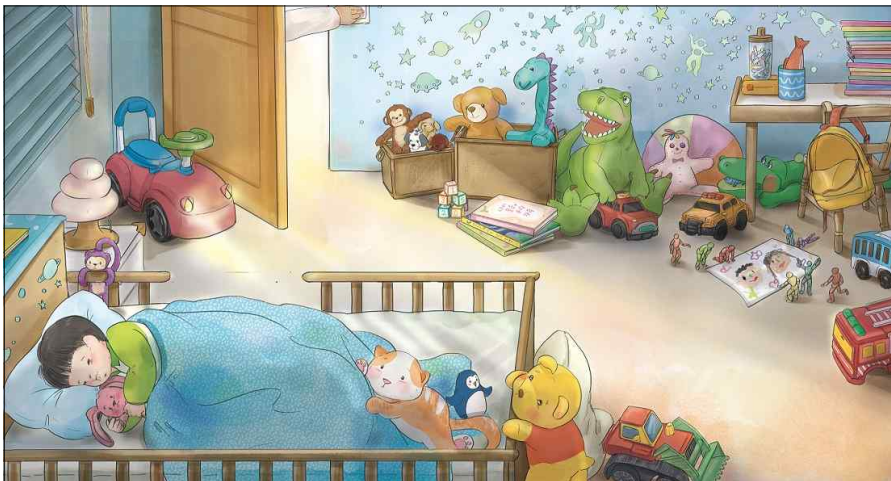
(3) 엄마가 무엇을 부를 때, 대답하지 않도록 이를 꼭 깨물었나요?



- ① 음식 이름
- ② 동물 이름
- ③ 내 이름
- ④ 친구 이름

▶ -----

(4) 집에 돌아와 불이 꺼지고, 방 안에 무엇이 가득해서 눈물이 흘렀나요?



- ① 엄마 냄새
- ② 아빠 냄새
- ③ 친구 냄새
- ④ 강아지 냄새

▶ -----

4. 확장활동

(1)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뻘뻘한 마음은 기다림, 서운함,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결국 '사랑'에서 시작된 겁니다. 아이가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하기에 아주 많이 기다렸고, 그렇기에 이렇게나 서운한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엄마의 사랑을 느끼나요?



(2) 책을 읽고, 나도 모르게 엄마의 냄새가 떠올랐나요? 우리 엄마 냄새는 무엇인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3) 엄마는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아이를 살뜰히 살펴요. 말을 걸고, 뽀뽀하고, 이불도 잘 덮어 주고 쓰다듬어 보기도 하죠. 그래도 아이는 서운했기에 눈을 뜨지 않아요. 화가 나거나 서운할 때 여러분만의 표현 방식이 있나요?



[정답]

책 이해하기

(1) ② 엄마 | (2) ④ 자는 척 | (3) ③ 내 이름 | (4) ① 엄마 냄새

확장활동

- (1) 엄마가 아픈 나를 간호해 줄 때 사랑을 느껴요.
맛있는 밥고 반찬을 정성스레 만들어 주실 때 사랑을 느껴요. 등
- (2) 우리 엄마 냄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라지꽃 냄새예요.
우리 엄마에게선 향긋한 빨래 냄새가 나요. 등
- (3) 큰 소리로 왜 화가 났는지 이야기해요.
입술을 꾹 내밀고 뽀로통한 표정을 지어요. 등